

헌법재판연구원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 축 사



2022. 8. 26.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은 2012년부터 매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왔고, 오늘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 라는 주제로 그 열한 번째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발제 및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과 시간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멀리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참가해 주신 마티아스 쿼 교수님과 앤 피터스 교수님, 백태웅 교수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훌륭하게 준비해주신 이현환 헌법재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증장기적·체계적 연구와 헌법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그 동안 헌법재판연구원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에 대한 선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학술심포지엄도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국내외 석학들의 깊은 통찰과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제약하고 있고, 새로운 감염병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식량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외 정치적 불안과 소득 양극화, 각종 불평등 문제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인권침해 상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한 국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주제인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 도 그 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입헌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다분히 유럽중심주의적이며 유토피아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고 각 나라의 주권과 안보가 중요하다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종교, 인종이 다양하고 나라마다 정치·경제적 현실이 다른 상황에서, 공통된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과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범인류적인 보편적 가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자극을 줌으로써 일련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앤 피터스 교수님은 발제문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초국가적 연대와 사회권을 강조하고 계시고, 마티아스 쿨 교수님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제사회는 그 동안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노예매매 금지, 난민보호, 부녀와 아동의 매매금지 등 각종 인권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에 의하여 인권보장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고,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1966년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되었습니다. 1990년 유럽평의회 결의에 의해,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의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지역별로도 미주인권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아프리카인권재판소 등의 지역 인권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헌법재판기관들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 헌법재판을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2010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을 설립하였고, 한국에는 각종 연구활동의 기획, 수행 및 조율을 담당하는 연구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인권재판소의 창설도 주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주제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오늘날 인류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원리 구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견을 나누고, 세계입헌주의 담론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 역시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방식이지만 그 열정과 진지함은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의미한 연구 교류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국제학술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헌법재판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8. 26.

헌법재판소장 유남석